


# 마녀사냥과 연애 담론의 시대



기독교 안에서 가장 빈곤한 담론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연애 담론'이 아닐까 싶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이나 봉사, 방언, 윤리적인 삶과 같은 담론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세속적인 대화 소재처럼 여겨져 천대받곤 한다. 그러니 대체로 교회 안에서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대화는 눈치 보며 숨겨진 자리에서나 겨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 더욱 서툰고, 낯선 경우가 많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한국 사회 자체가 좀 보수적인 면이 강해서 연애 문화가 그동안 많이 서툰 면이 있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사연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들의 사랑이 서툰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성적인 대화라든가, 연애와 관련한 대화들은 대체로 공적인 자리에선 배제되어지고, 숨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 연애 문제는 삶의 우선 순위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사실 실제로는 그런 주제에 매우 관심있어 하면서 말이다. 오죽하면 청년들의 대화 소재는 사회나 정치와 같은 거대 담론에서 시작해서, 연애 관련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는 '갈때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성 담론과 연애와 같은 주제들의 대화가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거리낌없이 그런 대화가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파급 속도는 마치 힘써서 손가락으로 눌러 압축시켰던 스프링이 손을 떼는 순간 용솨음 치듯듯이 튀겨나가는 것처럼, 감추어졌던 성담론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급속도로 확장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 담론이 된 수준에 이르렀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아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가 여전히 가장 큰 인기예, 토크쇼에서도



아름다운 기독교청춘을 소개합니다!

청년 **박명호**  
서강대 언론대학원 미디어 교육 전공  
국제신학대학원 M.div.  
미디어 교육가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연애 이야기이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은 썸남 썸녀의 연애 밀당 이야기이고, 인터넷 뉴스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기사는 연예인들의 스캔들 기사이지 않은가? 이렇게 사회 분위기는 연애 지상주의로 흘러가 청년들은 물론이고, 아직 사랑이 뭔지도 모를 어린이나 이미 결혼한 중년들, 그리고 노인들에게 까지도 연애의 욕망을 들끓게 만들었다. 이토록 허무하고 짧은 인생 가운데 유일한 낙이 바로 '연애'라는 기본 전제가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듯 하다. 얼마나 많은 연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섹스를 한 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과 다름없게 여겨지고 있는 사회 풍경이니 말이다.

이렇게 연애 담론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JTBC에서 금요



'청년연단'은 기독교청년의 고민과 갈등, 소리를 담은 창구입니다. 문화, 세상이슈에 대한 기독교청춘의 파릇파릇한 생각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이름, 이메일, 연락처) : editor.worldview@gmail.com

일 밤에 방영하는 <마녀 사냥>이다.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이 난리를 치고, 온동네를 뛰어다니는 리얼 버라이어티 쇼가 대세여서 너도 나도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와중에, 4명의 남자가 테이블에 다소곳이 앉아 연애를 주제로 나누는 대화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다. 아마도 그것이 '성과 연애'를 소재로 한 토크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프로그램의 큰 인기 몰이는 그동안 얼마나 한국 사회가 그 주제를 숨겨왔으며, 속으로는 욕망하면서도 겉으로는 감추느라 속터지게 살아왔는지를 역설하였다. 마녀 사냥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는 학교든, 교회든, 많은 장소에서 중요한 대화의 소재가 되었고, 그(혹은 그녀)가 나에게 사랑의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린 라이트'는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네 명의 남자(신동엽, 성시경, 허지웅, 유세윤)는 단순히 진행자를 넘어서서 연애 상담사이자, 본격적인 연애 담론의 대중화를 가져온 개척자가 되었다. 물론 이전부터 사회적 분위기는 많이 변화되어 왔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사람들은 더이상 성과 연애에 대한 대화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이별 때문에 아파하는 사연을 공유하며 서로 위로를 얻게 되고, 또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성적 충동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면 바로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연애는 분명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구조,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우선시하느라 연애와 같은 사적인 삶의 이야기를 터부시 한 교회 분위기 속에서 마녀 사냥에서 다루어지는 토크는 묘한 해방감과 대리 만족을 준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연애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인간의 삶에서 연애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고 숭고한 경험이라고 한들, 한국 사회 속에서 다양한 부조리한 사건들이 터지는 와중에도 연예인 연애 스캔들이 포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비정





상적이지 않은가? 요즘 사회분위기에서 연애는 인간의 소소한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구원하는 가장 송고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비약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성경험과 연애가 지상에서의 인간의 비참하고, 남루하며, 허무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로 여겨지는 것만 같다. 그러니 사람의 인생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소비를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 연애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로 모아지는 듯 하다. 어찌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기독교의 관점이, 오늘날 “충만하고 행복한 연애 생활을 위하여”라는 관점으로 사회 분위기가 전환되어진다고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은 우리 자신의 삶에 더 솔직하게 직면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관점을 갖게하는 것일까? 그런 삶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허무하고, 빈곤한 삶을 가져오게 하였는가? 그것은 교회의 담론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게 하였는가?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뿐 아니라, 인간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까지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 남녀의 육체적 사랑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남녀 간의 성과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적인 것으로 추구되어질 때 오히려 그것은 가장 추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분위기가 후자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많이 염려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는 것, 성적 욕구를 참사랑과 같은 것인양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마녀사냥의 연애담론이 지금은 귀엽고, 유쾌하지만 지나치게 연애 만능주의나 쾌락주의로 우리의 삶이 끌려가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